

■ 주요 뉴스: 미국 트럼프, 2~3주 이내에 이란에서 철수. 이란 대통령도 종전 준비를 언급

- 미국 2월 구인건수, 전월비 큰 폭 감소. 3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는 상승
- 유로존 3월 소비자물가, 상승세 강화. ECB 필러 위원은 4월 금리인상 가능 발언
- 중국 3월 제조업 PMI, 1년 만에 최고치. 인민은행은 적절한 통화완화 지속 강조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중동전쟁 종전 기대 고조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주가 상승[+2.9%], 달러화 약세[-0.6%], 금리 하락[-3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트럼프의 이란 철수 발언, 소비자심리 호조 등으로 큰 폭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금융 및 자동차 관련주 강세 등으로 0.4%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지정학적 위험 감소,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으로 하락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8%, 0.6%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유가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등이 반영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 영향 등으로 3bp 하락

※ 뉴욕 1M NDF 증가 1505.3원(스왑포인트 감소 시 1506.7원, 1.53% 하락). 한국 CDS 하락

		3/31일	3/30일	전일대비			3/31일	3/30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528.5	6,343.7	+2.91%	국채 금리 10y	미국	4.32%	4.35%	-3bp
	유럽	583.14	580.73	+0.41%		독일	3.00%	3.04%	-3bp
	중국	3,891.9	3,923.3	-0.80%		영국	4.92%	4.94%	-2bp
	일본	51,064	51,886	-1.58%	CDS 5y	한국	35bp	36bp	-1bp
	한국	5,052.5	5,277.3	-4.26%		중국	52bp	55bp	-3bp
	달러지수	99.87	100.51	-0.64%	위험 지표	EMBI+	-	300	-
환율	유로화	1.1553	1.1465	+0.77%		VIX	25.25	30.61	-17.51%
	엔화	158.72	159.71	+0.62%		WTI유	101.38	102.88	-1.46%
	위안화	6.8944	6.9125	+0.26%	원자재	구리	561.4	550.2	+2.04%
	원화	1,530.1	1,515.7	-0.94%		금	4,668.1	4,510.9	+3.48%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트럼프, 2~3주 이내에 이란에서 철수. 이란 대통령도 종전 준비를 언급

-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미군이 2~3주 이내에 이란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언급. 또한 이란과의 합의가 종전의 필수조건은 아니라고 부연. 한편, SNS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 담수화시설에 초토화 공격을 감행할 것이며, 4~6주의 군사작전 일정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
- NYT와의 인터뷰에서는 미군이 철수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자동적으로 개방된다고 발언. 또한 미군은 이란에 오랫동안 머무를 이유가 없으나 아직 남아 있는 이란의 공격 능력을 없애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첨언. 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호르무즈 해협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군사 작전을 종료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발언
- 한편, SNS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지원하지 않았던 국가들에게 “미국산 석유를 구매하던지 호르무즈 해협에 가서 가져와라”고 게시하며 불만을 피력. 미국 역시 이들 국가를 돕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아울러 이란은 사실상 파멸되었으며, 어려운 부분은 끝났다고 평가
-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란과의 전쟁에서 향후 며칠이 결정적 시기가 될 것이며, 이란과 합의에 이르지 않을 경우 분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라고 경고
- 이란의 폐제시키안 대통령은 EU 정상회의 의장과 전화 통화에서 이란은 전쟁을 원하지 않으며, 추가 공격이 없다는 보장이 있을 경우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계획을 승인. 이는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는 이란이 해상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시도로 해석
- 나토(NATO) 회원국들의 미국에 대한 지원 거부가 지속.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미국 군용기의 자국 영공 통과 혹은 군사기지 사용을 거부. 이에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의 관계에서 균열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지적. 영국은 중동의 동맹국들을 위한 군사 지원을 확대할 방침
- 중국 외무성은 자국 선박 3척이 이란과의 협의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발표. 이날 WTI 가격은 미국의 對이란 군사 작전 종료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전일비 하락(101.38달러, -1.46%)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2월 구인건수, 전월비 큰 폭 감소. 3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는 상승

- 2월 구인건수는 688.2만건으로 전월(724.0만건) 대비 감소. 이는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미래 불확실성에 수요가 점차 냉각되고 있음을 의미. 3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심리는 91.8로 전월(91.0) 및 예상치(88.0) 상회. 전반적인 기업활동 및 노동시장 견해의 개선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 다만, 응답자들은 여전히 고용 및 물가 전망에 신중한 모습
- 한편, 1월 FHFA 주택가격지수는 전월비 상승세가 작년 12월에 비해 둔화(0.3%→0.1%)되었고, 3월 시카고 PMI는 전월비 하락(57.7→52.8)

■ 미국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인플레이션 위험을 경계. 경제 회복력도 강조

- 슈미드 총재는 인플레이션 기대에 대해 방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고. 아울러 미국의 경제 회복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

■ 유로존 3월 소비자물가, 상승세 강화. ECB 뮐러 위원은 4월 금리인상 가능 발언

-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동월비 2.5% 올라 전월(1.9%)에 비해 오름세 강화. 이번 결과는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이 주요 원인. ECB의 뮐러 위원은 역내 에너지 가격 급등이 지속되면 4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발언. 高유가 장기화 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부연

■ 중국 3월 제조업 PMI, 1년 만에 최고치. 인민은행은 적절한 통화완화 지속 강조

- 국가통계국의 3월 제조업 PMI는 50.4를 기록,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3개월 만에 확장의 기준인 50을 상회. 이는 생산 및 신규수주 호조 등에 기인. 한편, 인민은행은 1/4분기 정례회의 이후 적절한 수준의 완화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 또한 외부 충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4/1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3월 ADP 민간고용 및 ISM 제조업 PMI, 2월 소매판매
-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은 무살렘 위원 발언, 중국 3월 레이팅독 제조업 PMI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국채, 전쟁 비용·관세 환급·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시험대에 직면 - Reuters

(Treasury market's next test: rising war costs)

- 최근 중동전쟁 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화되면서 미국 국채금리는 큰 폭 상승. 하지만, 종전 이후에도 채권시장 건전성을 위협하는, 다음의 요인들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국 국채에 시험대로 작용할 소지. 첫째, 이란 공습 전부터 악화 가능성이 거론되었던 미국 재정은 국방비 지출 증가 예상으로 어려움 가중
- 둘째, 대법원의 트럼프 관세 불법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약 1750억달러 규모) 가능성과 정부의 새로운 관세 수입 불확실성. 셋째, 경제 성장세 지속과 高물가 우려로 인한 금리인상 가능성. 넷째, 연준은 잠재적으로 대차대조표 축소에 관심. 다섯째, 경기침체 발생 시 부양책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

■ 주요 선진국의 가격통제, 필요한 정책이나 오류 반복 우려도 존재 - Financial Times

(Price controls make a troubling return to the mainstream)

- 중동전쟁에 따른 高유가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증폭되면서 주요 선진국은 가격통제를 강화. 생활비 부담이 지속되면서 관련 조치에 대한 지지도 증가. 그러나 이는 단기적 효과에 지나지 않으며, 가격신호 조작은 오히려 시장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
- 또한,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은 재정부채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가격충격 발생 시마다 추가 개입 요구가 강해질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할 사안. 이에 중동전쟁 장기화 시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이 적절하며, 생산성 향상 등도 대안. 아울러 물가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은 수정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일본 투자자의 해외비중 확대, 자국 경제의 취약성 및 금리 차이 등이 반영 - 블룸버그

(The Iran War Is Reviving a Popular Trade in Japan)

- 중동전쟁 이후 에너지 불안 등으로 일본 경제의 취약성 부각되면서 엔화 약세 및 주가 하락이 발생. 외국인 투자자의 일본 주식 및 엔화 매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일본 투자자들도 해외 자산 비중을 확대. 이는 자본유출 가속화에 영향. 일부에서는 일본과 여타국과의 금리 차이로 캐리 트레이드가 재차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
- 캐리 트레이드 규모의 정확한 파악은 어렵지만 중동전쟁 불확실성, 여타국과의 상당한 금리 차이 등은 캐리 트레이드 여건을 강화. 이에 더해 최근의 엔화 약세 및 주가 하락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욕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

- **미국 트럼프, 정치적 입지 악화. 해외에서의 모험 지속할 가능성 - Financial Times**
(Trump is not just sinking in the Gulf)
 -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미 하락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중동전쟁 등 해외 개입으로 정치적 부담이 확대. 백악관의 생활비 절감 캠페인은 사실상 의미를 잃었으며,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지지율이 더욱 하락
 - 대통령 핵심 정책도 법원의 저항에 직면. 실제로 대법원은 주요 관세 조치를 무효화했고,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려는 수정헌법 14조 재해석도 기각될 소지. 관세와 이민 정책은 트럼프의 핵심 의제였기에 사법부 판단은 정치적으로 큰 타격
 - 당초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금년 중간선거 이후 해외 모험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활동은 이러한 예상보다 일찍 시작. 현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 특히 최근에는 쿠바에 대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언급한 사실을 유념할 필요
- **채권시장, 인플레이션보다 경제 성장 위험을 더 반영하기 시작 - 블룸버그**
(Why bond markets are changing their mind on war)
- **유럽, 중동전쟁에 따른 국방비 증액 요구 속 복지비 지출 확대 압박에 직면 - NYT**
(Europe Has a 'Guns vs. Butter' Problem. War in Iran Makes It Worse.)
-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중동전쟁 휴전 협상 촉구 등으로 확대될 소지 - Financial Times**
(A blueprint for Chinese global leadership)
- **엔화 약세, 유가 급등·여타국과의 금리 격차 반영. 당국 개입 효과는 제한적 예상 - 블룸버그**
(Why Is the Japanese Yen So Weak — and Will Authorities Intervene?)
- **아시아, 호르무즈 해협 폐쇄에 특히 취약. 공급망 다변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블룸버그**
(Why the Strait of Hormuz Closure Is an Asian Crisis)
- **영국 경제의 구조적 경직성, 위기 시 유로존 국가들보다 부정적 결과 초래 - 블룸버그**
(Why the UK Is Facing a Worse War Outcome Than the Euro A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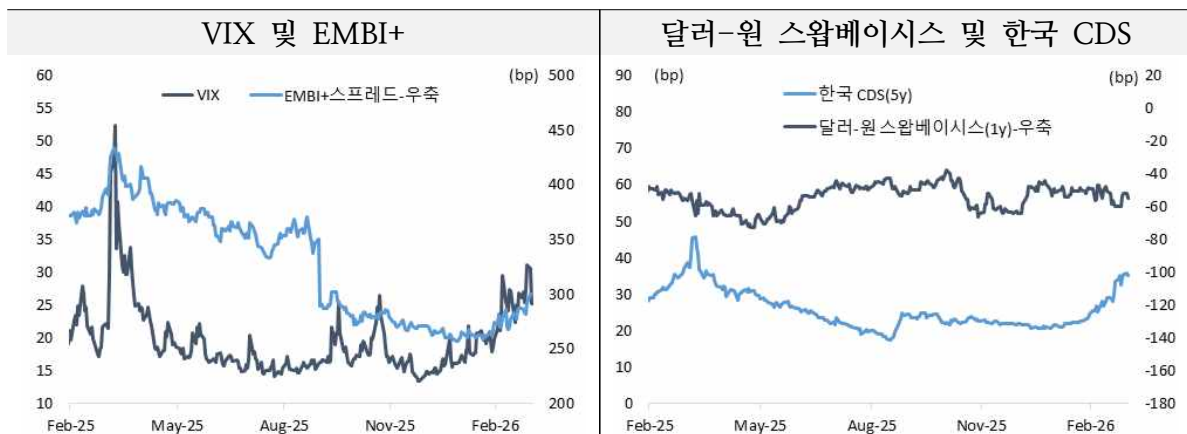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